



## ‘향수병’일까?

### 네덜란드 프로축구 이천수 일시 귀국…2주간 휴식

네덜란드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이천수(26·페예노르트·사진)가 현지 적응 과정에 서 지친 심신을 달랠기 위해 일시 귀국해 2주간 휴식을 취한다.

이천수의 에이전트인 IFA의 김민재 대표는 27일 “이천수가 최근 감기 몸살증세로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다. 구단과 미팅에서 좀 쉬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구단에서 2주의 휴가를 허락했다”고 밝혔다.

이천수는 감기로 인한 컨디션 난조로 지

난 25일 열린 FC 그로닝겐과 정규리그 원정 경기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 대표는 “구단에서도 외국 선수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흔히 겪는 일이라고 보고 배려해 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천수는 빠르면 28일 귀국할 예정이다. 비록 재충전의 시간은 벌었지만 치열한 주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천수에게 2주의 공백은 결코 반기운 일이 아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K-리그 ‘대어급’ 어디로 가나

을 시즌 프로축구 K-리그가 개인상 시상식만 남겨둔 채 도든 일정을 마치면서 겨울 이적 시장이 서서히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곧 FA(자유계약선수) 100여명 명단을 공시한다. FA로 풀리면 연말까지 원 소속 구단과 우선 협상을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한 맨 내년부터 다른 구단들과 접촉할 수 있다.

### 축구聯, FA 100여명 공시…김남일·안정환 日 타진설

FA 규모는 작년 80명에서 25~30% 가량 증가했다. 2005년과 2006년에 계약금 없이 입단한 선수는 계약기간만 끝나면 ‘50% 출전 규정’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FA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축구연맹은 “FA 중엔 대어급이 많지 않다. 오히려 구단 간 필요에 따른 이동과 해외리그에서 돌아오는 선수들이 이적시장에서 비중을 차지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축구계 에이전트들 사이에 떠도는 이적 소문을 종합해보면 일본프로축구 J-리그와 관련된 움직임이 가장 많다. 수원 김남일이 J-리그 빅셀 고베로 옮길라는 설이 무성한데 수원 구단 측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역시 구단에선 근거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이번 겨울에도 시장에 나오는 ‘블루칩’을 사들이는 데 가장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여기다 국가대표 오른쪽 윙윙 오법석(오코하마)의 진로도 관심을 끈다.

또 딕 아드보카트 감독을 따라갔다가 러시아 리그에서 주전 자리를 잡지 못한 이호(제니트)도 복귀 가능성이 있다. 역시 국가대표 미드필더인 김정우(나고야)는 한때 성남 이적설이 나돌았지만 성남은 “우리 팀엔 포지션이 겹치고 팀 컬러에 맞지 않는다”며 영입설을 부인한 상태다. 김정우도 중원이 취약한 팀에선 구미가 당길만한 ‘매물’임엔 틀림없다.

국내 구단들끼리 트레이드도 막 추진되기 시작했다.

전남의 올림픽대표 주전 수비수 강민수와 전북 중앙 수비수 정인환이 맞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 여유가 있는 수원, 성남, FC서울 등이 이번 겨울에도 시장에 나오는 ‘블루

칩’을 사들이는 데 가장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에 참가하기로 뒤늦게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연맹은 예정대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결승 2차전 승부는 1차전에서 3-0 몰수승을 거둔 미포조선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1차전 당시 주심에게 강하게 항의하다 퇴장당한 주전급 5명과 김창경 감독이 2차전에는 나올 수가 없어 수원시청이 세 골자 이상의 승부를 뒤집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골밑 ‘다윗과 gol리 앗’ 27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07 KB 국민 은행행 농구대전에서 경희대 김민수가 현양대 이 친영의 마크를 피해 골밑 솟을 하고 있다. 현양대가 99-77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 ‘몰수패’ 수원시청 “실업축구 챔프 2차전 참가”

몰수패를 당한 실업축구 수원시청이 곤질 곁에 내셔널리그 월파연결경 2차전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내셔널리그 연맹은 27일 “수원시청에 확 인해 본 결과 28일 오후 2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울산 현대미포조선(이하 미포조선)과 월파연결경 2차전에 참가하기로 전

해왔다”고 밝혔다.

연맹은 오전만 해도 지난 23일 1차전에서 선수 5명이 퇴장당한 수원시청의 충격 여파로 2차전을 개최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론지지 못했다. 방송사의 2차전 생중계 일정도 전면 취소됐다.

그러나 수원시청이 내부 회의를 거쳐 2차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급사고는 —  
본사 판매국(062) 220-0551

### 무한사랑

용봉동 택지지구 미니스토리  
김치찌개, 청국장, 제주흑돼지전문  
대표 박효현  
☎(062)524-1070

### 여수회세고시

용봉동 택지지구 전통우고한마음  
모도회 세교사천문점 단체이용문  
대표 서한국  
☎(062)525-5564

### 투영부동산컨설팅

북구 용봉동 1247-10번지  
토지APT, 삼가 매매및 임대전문  
대표 이종익  
☎(062)527-9966

### 피자지오

장성군 읍 영천리 947-9  
인성고을 통한 전인교육  
장성 봉우관이 함께합니다  
대표 미경이 엄마  
☎(061)242-6888

### 초원모밀

화정동 세무서 맞은편  
모밀국수비빔국수, 모밀우동, 냄비모밀  
단체예약 손님환영  
☎(062)371-0977

### SK텔레콤베스트정보

화정동 구 2층 사거리 모이터운영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보상교전문점  
대표 정재환  
☎(062)372-0017

###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콜박스거리에서 동양철학원  
시주, 국립, 문수, 직명  
☎(062)224-7687

### 서원정

동구 풍암동 풍암고등학교 정문앞  
굴비정식전문  
☎(062)682-6253

### 구슬방당구장

송정2동 영림주차장 맞은편 2층  
최신통로로이상화비닐은행기재전화점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062)945-9980

### 제일꽃유통

우산동 441번지  
호화, 부케, 꽃바구니, 관엽, 난전문  
대표 심양길  
☎(062)511-9196

한국여자핸드볼 대표팀 출국

내달 2일 佛 세계선수권 참가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다음달 2일(이하 한국시간)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제18회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27일 낮 출국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때 투壕의 은메달을 이끌었던 임영철(효명건설)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대표팀은 골키퍼 3명에 피보 3명, 센터백, 레프트백, 라이트백, 레프트윙, 라이트윙 각 2명씩으로 모두 16명의 정에 멤버로 구성됐다.

16명 가운데 아테네에 다녀온 선수가 9명이나 된다. 허순영(33)과 최민정(26·이상 덴마크 오르후스), 오성옥(35), 김자연(26·이상 오스트리아 히포방크), 이상은(33·스페인 이트삭스), 우선희(29·루마니아 블루스루브라소프) 등 해외와 6명에 오영란(35), 문필희(25), 명복희(28·이상 효명건설) 등 국내과 3명이 그들이다.

### 맨유 퍼거슨 감독 징계 위기

#### 심판에게 모욕적 발언 이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선 제 아무리 명장이라도 심불리 심판의 권리에 도전했다가는 호된 대가를 치르는 모양이다.

영국 여왕에게서 기사 작위를 받아 ‘경(sir)’으로 불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66) 감독이 심판에게 거친 말을 쏟아부었다는 이유로 곧장 징계 위기에 처했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퍼거슨 감독은 지난 주말 불린과 원정 경기 도중 심판에게 모욕적인 말을 내뱉았다고 한다.

후반에 관중석으로 향해 올라간 퍼거슨 감독은 분을 쏘이지 못하고 심판에게 손가락질을 해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퍼거슨 감독의 ‘혐의’가 입증되면 벌금 또는 출전정지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클레튼버그 심판이 올린 경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징계 수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승리표

28일(수)

▲N리그 월파연결경전 <수원시청 : 미포조선>(14:10-KBS1)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 신한은행>(16:50-SBS스포츠)

▲프로농구 <KT&G : 오리온스>(18:50-Xports), <LG : 전자랜드>(18:50-SBS스포츠)

29일(목)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5차전 <리버풀 : FC포르투>(04:30-MBCESPN)

우리문화연구회소리노리

회장동 3층 염주체육관 1층 118호  
풀, 잠구 기초한 회원수수모집  
<월, 수, 금 오전 10시~11시>  
☎(062)371-4242